

미국 입국하려 4,358km 도보 이동한 청년들

미국으로의 이주를 위해 오직 걸어서 멕시코에 도착한 베네수엘라 가족이 최근 멕시코 언론에 소개됐다.

호세, 에델란, 가브리엘라, 그레이시 등 베네수엘라 청년 4명은 그들이 가족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가족관계 밝히기를 꺼려했다. 혹시라도 당황 불이익을 걱정해서다. 청년들은 “처음엔 가족과 친척 20명이 함께 출발했어요. 그런데 도중에 실종되고, 헤어지고 해서 지금은 저희 4명만 남았다.”라고 밝혔다.

청년들은 약 4개월 전 베네수엘라를 탈출했다. 이들은 걸어서 콜롬비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니カラ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6개국을 거쳐 멕시코 땅을 밟았다. 같은 길이만 4,358km, 꼬박 4개월간 1개월마다 평균 1,000km 이상을 걸은 셈이다.



▲ 4,358km를 걸어 미국 국경까지 도달한 베네수엘라 청년들. 사진=Imilario.com

청년들은 목적지 미국에 바짝 다가섰다. 국경을 가르는 브라보강을 건너면 미국이다. 브라보강을 건너려면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한다. 멕시코 이민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 강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던 이민자 19명이 의사했다.

청년들은 “위험한 줄 알지만 마지막 힘을 내겠다.”면서 “반드시 미국에서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밀림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며칠씩 밀림에서 잠을 자기도 했고, 멕시코에선 이민자들만 노린다는 강도를 만나기도 했다.

청년들은 베네수엘라를 떠날 때 커다란 피켓을 준비했다. 피켓에는 “저는 베네수엘라 사람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적혀 있다. 피켓을 본 사람들은 청년들에게 선뜻 식사를 제공하는 등 도움을 주기도 했다.

다리에 총격 입고도 주민 대피시킨 우크라 소녀

우크라이나에서 15세 소녀가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다친 민간인들을 태운 차를 몰고 안전지대까지 탈출했다. 소녀 역시 운전 중 총격받아 다리를 다쳤으나 끝내 운전대를 놓지 않았다.

세르히 가이다이 루한스크 주지사는 6일 텔레그램에 소녀의 악몽 같은 탈출기를 전했다. 영상에서 이를 이끌어지지 않은 소녀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도네츠크주 바흐무트에서 구급차에 실린 채 차량을 이용한 탈출 여정 동안 지뢰밭을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회상했다. 가이다이 주지사는 “바흐무트로 오는 길에는 지뢰가 매설됐다. 러시아군은 체스판 패턴으로 폭발물 함정을 설치해놨다.”고 밝혔다.

소녀는 원래 남성 3명, 여성 1명과 함께 바흐무트에서 약 32km 떨어진 루한시크주 도시 포파스나에서 탈출하는 차량의 동승자 중 1명이었다. 그러나 일행이 도시를 탈출할 때 운전자 남성을 비롯한 남성 2명이 러시아군의 공격에 크게 다치면서 소녀가 운전대를 잡아야 했다. 운전 면허증은 없으나 운전을 배운 적이 있는



▲ 주민 대피시킨 우크라 15세 소녀. 사진=dailymail.co.uk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소녀는 “쉽지 않았으나 사람들을 다친 채로 둘 수 없었다. 가족은 아니지만, 아는 사이였다.”면서 “내가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면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소녀는 러시아군의 총격에 다리를 맞아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운전대를 끝까지 놓지 않았다. 소녀는 “사람들을 죽게 놔둘 수 없어 뭔가 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신생아에게 ‘제3의 성’ 부여한 부모 논란



▲ 아기를 안고 있는 인플루언서 부부. 사진=Instagram

브라질의 한 인플루언서 부부가 갓 태어난 아기에게 성(sex)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논란이다.

출산 전 부부는 2세를 임태한 사실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팔로워들에게 알렸다. 부부는 팔로워들에게 “이제 곧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기의 성별을 알게 된다. 작은 축제 이벤트와 함께 아기의 성별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팔로워들은 “기대된다. 예쁜 딸이면 더욱 좋겠다.”, “축구선수가 될 남자아이면 바랄 게 없겠네.” 등의 댓글을 달며 함께 궁금해했다.

하지만 정작 눈길을 끈 건 자신을 논바이너리(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라고 소개한 한 팔로워의 댓글이었다. 그는 “부모가 왜 아기의 성별을 정해주려 하느냐. 성은 자신의 성적정체성을 깨닫고 스스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부부는 이 댓글을 읽고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아빠 브루노는 “괜히 딴지를 거는 것 같아 잠시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블린 말이 아니었다.”며 “아내와 상의하기 시작했고, 출생신고 때 아기의 성별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부의 이 같은 결정은 현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부부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많았지만 “생물학적 성은 태고나는 게 아니냐? 아기가 자라면 언제든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생물학적 성까지 인정하지 않는 건 과도한 처사”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Thank You Dental!

Implant Orthodontic General Dentistry



Special 1

Free Consultation

Digital panoramic X-ray

Special 2

Implant \$2,000 \$1,200

환자 맞춤 이식 및 관리
뼈이식시 자가혈 치료 무료
(Reg. \$500)

뼈가 부족하거나 잇몸이 약해서 임플란트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Thank You Dental에서는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CBCT 구비, 자가혈 CGF 치료, 최상의 장비 구비 및 철저한 소독

풍부한 임상 경력, 임플란트 전문, 일반치과, 교정치과, 전문
치위생사와 함께 일하는 원스톱 종합 치과

OC (714) 772-5656

1721 W. Katella Ave #A, Anaheim, CA 92804

한인 담당
매니저 Annie

임플란트, 구강외과
교정 전문의
일반 치과
치위생사

Dr. Michael Ahn
Dr. Dan Nguyen
Dr. Young Kim, Dr. Hoang Viet
Kelly Nguyen, Mindy Pham

각종 보험 (PPO)
메디칼 환영